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갈라디아서-

출애굽기 24:12-18, 갈라디아서 1:6-10

정윤돈 목사님

서론 : 갈라디아서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

(1) 갈라디아서의 기록 배경

갈라디아서가 참 중요한데, 사도 바울의 초창기 개척 사역에서 있었던 현장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보냈는데,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써서 보냈다. 그 간절함이 녹아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다. 한편,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하는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장 분량의 로마서를 6장으로 축약한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직접적인 이유는,) 할례와 모세의 율법 준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강요하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갈4:10-11을 보면 바울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실제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상징이므로 안 해도 된다고 정말 어렵게 가르쳐 놓았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아니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다른 복음을 더한 것이다. 거기에서 수고하고, 생명을 걸고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프고 또 간절했겠는가. 그러면, 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많았겠는가?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땅과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 전도할 때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지역에 대체로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없고 복음이 약해지니까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 버렸다. 각인, 뿌리, 옛 체질로 돌아가 버렸다.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할례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것이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다.

(2) 율법의 종류

①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속으로 생각해 보라. 답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여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이 없고, 지켜야 할 율법이 있다는 것이다.

1) 없어진 율법, 안 지켜도 되는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할례와 절기, 제사들이다. 지금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지 않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율법절을 지킨다고 한다. 제 칠일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한다. 한번은 안식교의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했다. "안식일을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제사는 안 지내세요? 양 잡아서 번제도 다 지내야 하는데 왜 안 지내시나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 "틀린 것 그만 가르치고 나오세요. 아시면서 왜 그래요. 사람들 지옥 보내지 마시고 나오세요." (웃음) 아무 말도 못 하고 가셨다. 구분을 잘 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버려진 율법, 없어진 율법이 있다.

2) 대체되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성막이다. 오늘 야외예배 가는데, 텐트 치고 성막 한 번 만들어 봐야 하나? 요즘은 없지 않나. 성전도 그런데, 법궤가 있고 성소, 지성소가 있다. 그런데 오늘은 복음이 있는 교회당이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당과 솔로몬의 성전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오늘의 시간표는 성막도 솔로몬 성전도 카터룸 동굴도 아니다. 곳곳에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마음껏 문화운동, 영성운동을 쫓아 나가라는 것이다. 그게 오늘의 시간표다. 그래서 대체된 것이다.

3) 그리고 유지되고 있는 율법이 있다. 살인하면 안 되지 않나. 간음,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다. 어버이주일인데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십계명도 율법인데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혼란이 온다. 바울은, 이런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하며, 복음을 가진 우리는 그것을 순화시켜서 더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다. 우리교회에는 며느리들이 참 잘 들어오는 것 같다. 아들은 잘 모르겠는데, (웃음) 며느리들이 참 잘 한다. 시어머니와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그런데 그 복음의 길을 함께 가고, 이제는 믿음들이 더 좋아진다. 진정한 효도다. 친 부모도 효도하기 어려운데 시부모를, 그냥 따르기도 어려운데 신앙의 길을 함께 가며, 순화시켜서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것이 진정한 효도다. 예수 안 믿어도 인간이라면 해야 하는 것이 이런 율법이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해야 할 율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행위, 형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과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장애인들을 가족처럼 사랑해야 한다. 차매노인들을 사랑해야 한다.

② 그리고 율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과 관련된 율법이 있고, 삶과 관련된 율법이 있다. 유대인들이 와서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율법은 핵심이 할례였는데, 이것은 구원에 대한 것이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한 것인데, 바울은 이 부분을 두고 집중적으로 '아니다' 하고 편지를 쓴 것이다. 그 외에,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613가지의 율법이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다.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다. 그 중에는 아주 도움이 되는 율법도 있고, 없어진 율법도 있고, 구원에 관한 율법도 있고, 사회생활에 대한 율법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다.

1. 갈라디아교회에 침투한 다른 복음과 한국교회에 침투한 다른 복음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큰 첫째로, 갈라디아교회에 침투한 다른 복음과 한국교회에 침투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1) 첫째, 갈라디아교회에 침투한 다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주장한 율법적인 다른 복음의 내용은 왜 문제가 되는 것이었을까?

① 첫째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이들에 대하여 사도바울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성도에게 주신 자유

를 빼앗고 종 삼으려고 하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 갈2:4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를 때문이다." 그래서 신천지는 다 거짓말 투성이다. 모든 게 거짓말이다. 몰래 들어가서, 말하지 말고 속이라고 한다. 거짓말이라고 한다. 신천지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추수꾼들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 어쩌면 그렇게 철저히 거짓말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율법으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았는데, 청년, 청소년들을 빼앗아 가두고 자유를 얽어맨다. 신천지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다. 자유를 빼앗는다.

② 그리고 성도를 피는 자들이라고 했다. 갈3:1에, "누가 너희를 피더냐?" 이단들은 꼬신다. 거짓말로 속이고 꼬시는데, 안 넘어갈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③ 갈6:13에, 할례를 행하게 하고 자랑하게 한다.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이렇게 시킨 이유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었다.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 목적을 달성했어!" 이런 식의 자기 자랑을 하려는 것이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 뿐인 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해야 할 때가 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랑해야 한다. 여러분 마음 진심에,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껏 자랑해도 된다. 그런데 마음 진심에 교만이 있다면, 가능한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있는 것이 더 복음적이다.

④ 네 번째로,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방종하고 타락하는 자들이었다. 갈6:13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는데 율법은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 도둑질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런 것은 지키지 않고, 할례, 형식적인 것만 강조한 것이다. '이것저것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 놓고 자기는 뒤로 가서 몰래 다 한다. 그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 무거운 짐을 얹어놓고 자기는 실권을 안 한다. 노예로 만들어서 자유를 빼앗는다. 바울이 영적인 눈이 밝으니까 이런 모습이 환히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가 난 것이다. 그래서 "저주를 받으시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영혼을 빼앗고 구원을 빼앗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 같은 갈라디아 성도들이지 않나. 바울이 초창기로서 성질이 좀 있었다. (웃음) 그래서 저주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열두 제자 중에 속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 한 것이다. 그래서 갈1~2장 중간까지, 내가 인간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세우도록,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강조한 것이다.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았기에, 열두 제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갈라디아 지역에는 예수님을 만났었던 사람들, 열두 제자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그때 없었는데? 필박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네?" 그런데 정말 바울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지적한 게 아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울의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이 약해지려면 어디까지 약해질 수 있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하면 어느 날 굉장히 약한 자가 된다. 인간 이하가 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조금씩 착취당하기를 축원한다.

⑥ 또, 성도를 이간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갈4:17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뜻이 아니다. 열심을 내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퍼서 가르치는데, 알고 보면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나쁜 동기를 가지고 말이다.

⑦ 일곱 번째로,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는 것은 천박한 초동학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 갈4:9에,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은 완전히 구원받고 해방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란다. 구원받은 것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된다. 구원받은 데에는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

⑧ 여덟 번째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한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율법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본인들도 못 하면서, 갈 5:3에,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순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롬3:20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것이다.

(2)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언제 개혁신문 기사를 만났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았다. 고교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복음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가정에 닥쳤다고 한다. 그때 복음을 받게 되어서 온 가족, 온 가문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명단을 놓고 기도하면서 만날 때마다 복음을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상처입을까봐 말을 안 할 때도 있는데 말이다. 우리 권사님 한 분도 보니까, 가족에게 복음 전해야 한다고 낱자 정해서 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러더라. 가문을 사랑하고 복음의 필요성을 아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도 지금 명단을 적고 기도하다가, 시간표 정해서, 캠프기간 속에서, 또는 끝나고 나서도, 인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란다. 특히 이 단이나 잘못된 것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전해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왜냐?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노력했는데 안 돌아오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하셨다. 이번 캠프기간에 특별히 기도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① 신천지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구약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비유꽃을 해서 가르치는데, 사실 맞지도 않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평소에도 성경공부를 안 했던 성도들은 확 넘어간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긴 자, 성령으로 임한 이만

회라고 한다. 여기에 속한다는 말은, 일단 국어를 잘 모르는 것이다. 다시 오신다는 말은 이미 왔었다는 말인데, 이만화가 언제 전에 온 적이 있다. 초립예수부터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불완전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숫자가 144,000명이 채워져야 구원받고 영생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몰려가고 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 ②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절기를 강조한다.
- ③ 여호와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천국 지옥을 부인하고 있다. 그들의 구원관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런 것을 믿는 걸 보면 사람들이 너무 연약한 것 같다.
- ④ 신사도운동이 있다. 우리 열정으로 이사한다고 한다. 이들은 지금도 새로운 사도가 세워진다고 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 새로운 사도, 신비주의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면 새로운 사도라면 지금도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성경을 써야 한다. 얼마든지 이상한 이단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 육신적인 것이다. 체험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다 육신적인 것 아닌가.
- ⑤ WCC에서는 기독교적인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했다. 그게 그들의 선전문이다. 기독교는 예수를, 불교는 부처를, 이슬람교는 알라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한다. 또,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가르친다. 그게 WCC의 선전문이다. 복음 전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니다. 정치적 해방, 경제적인 착취로부터의 해방, 사회 구조적인 악으로부터의 해방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한다. 그 WCC가, 그 세속적인 신앙이 지금 기독교 안에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다른 복음이다.

2.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사도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한다. 갈1:11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을 통해서 정리된 복음이다.
- (2)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다. 갈1:12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 (3)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은 구원의 복음이다. 이것이 핵심적으로 정리된 것이 갈2:16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 (4)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너무 감사한 것은, 갈2:20도 중요한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갈2:19을 먼저 잘 이해해야 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예화를 들기에는 좀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가 돌아가신 모 회장님이 있지 않나? 그런데 이분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잘못했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어 버리면 과거의 어떤 허물과 잘못도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기소할 수가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뭔가? 우리는 매일 죽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죽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다. 신분 세탁이 되어 버렸다. 지문도 달라졌다. 주민등록번호도 달라져 버렸다. 증거가 없다. 왜냐? 탄 사람이 되어 버렸다. (웃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상승되어 버렸다.
- (5) 아브라함도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갈3:6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내용은, 창15:6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의 반복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종의 후손이 아닌,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다.
- (6) 또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는 복음이다. 갈4:6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با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3.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의 삶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2-4장은 교리적인 내용이라면, 5-6장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 (1) 갈2:1에도 나오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제자들의 당연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베드로가 만났는데,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했다. 그랬더니 바울은, '내가 이것을 이미 평소에 힘써 하고 있다'고 했다. 여러분도 하고 있어야 한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항상 돕고 있어야 한다. 당연한 것이다.
- (2) 갈4:15에,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정도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 (3) 갈4:16에, 우리 기분이 아무리 나빠도 참된 말을 수용할 수 있는 성도와 렘넌트가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목사님들이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따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느냐' 하고 말할 수도 있다. 부모님이 그렇게 혼낼 수도 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참된 말 아닌가. 그게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 않나?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거나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소화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 (4) 갈4:19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했다.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도들도, 교역자들도, 새가족들도, 양육자들도, 제자를 양육하고 복음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수고한다고 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이것을 피해서는 안 되며, 피할 수도 없는 것이다.
- (5) 또 갈5:13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적인 율법이 주어졌다. 그것이 무엇인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중노릇 하라."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지 않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해 놓고, 다시 '너희는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직 사랑으로 중노릇하도 해야 할 종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과 같이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중과 같이 봉사해야 한다. 은혜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으나, 자 원하는 중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 (6) 갈5:14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다.
- (7) 갈5:15에, 그리스도인이려면, 서로 물고 뜯고 싸워서는 안 된다. 혈기, 정욕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 싸움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싸움 길만 찾는다. 체질이 안 변해서 그렇다. 교회 안에 그런 분이 많다. 우리가 싸움 줄 몰라서 싸우나? 그게 아니지 않나? 체질이 변화되었으니까, 얼마든지 싸울 수도 있고 피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다. 은혜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거듭난 자이기 때문이다. 그게 별 것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 (8) 갈5:17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했다. 그 내용이 갈5:19-21에 꼭 나와 있다. 여려분, 술을 조금 마셔도 되는가? 담배를 조금 피워도 되는가? 안 된다. 그게 우리 (수준)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유행원은 유행에서 얼마까지 돈을 흠쳐도 되는가? 1원 정도는 괜찮나? 아니지 않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양심은 이미 말해주고 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자유로우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긴 사회생활이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이 온전하심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기를 축원한다. 거짓말은 조금 조금씩 해도 되는가? 공무원이 뇌물 받으면 되는가? 100만 원 이하의 받기도 괜찮은가? 안 되는 것이다. 모든 잘못을 안 짓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되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자원으로 마음으로 채찍질하고, 메시지를 붙잡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여지도록 살아야 한다. 그게 너무나도 행복해야 한다. 그런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안 해도 얼마든지 행복해야 한다. 술, 담배 안 해도, 거짓말 안 해도 도박, 마약, 화투 안 해도, 다른 것 안 해도 재미있어야 하고 행복해야 한다. 그 정도의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 (9)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갈5:22-23에 잘 알고 있는 그 열매들이 나온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단계, 신앙적인 성장의 단계가 있다. 그것이 똑같은지는 않다. 처음에는 겨우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도다. 그런데 성령충만을 받으면 주일마다 올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가 참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당연히 주일성수가 되어지지 않나? 성령충만을 받은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성령 능력의 세례를 받게 된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이 은혜를 받고 바로 나가서 전도캠프하고 복음 전했다. 바울은 목숨을 걸었다. 돌에 맞아가면서도 섰고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 충만이다. 우리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한다. 모든 것을 헌금하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계속 심방하고, 전도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다. 그 한 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어느 때 그 되는가? 겨우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게 되는가? 아니다. 다르다. 성령의 능력 충만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래야 우리교회가 3천 제자가 된다. 여러분 산업에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게 된다. 하나님의 임장에서 '재는 필요없어, 있으나마나야.'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처참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 너는 좀 필요해.' 이렇게 되면 끝난 것 아닌가. 결혼 난 것 아닌가. 여러분, 성령충만, 말씀충만, 믿음충만하여 하나님이 꼭 쓰시고 싶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바울은 뜨겁게 전도했다. 성령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목숨을 걸고 다 시역을 했다. 성도를 사랑했다. 이 참된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확신이 있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을 걸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서도 참 복음은 양보하지 않았다. 우리는 반대 아닌가?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지키려고, 참된 신앙과 참된 복음적인 율법은 다 양보하고 있지 않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결론 : 구원받은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할 것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결론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결론적인 메시지이다.

- (1)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썼다. 이혼 가지가 다 하 나라는 말이다. 여러분이 성령충만하고 은혜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된다. 거듭나게 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현상변화가 되어진다. 지교회하자, 말씀운동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각자가 은혜를 받고,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 은혜, 그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 하게 될 때, 현상의 흑암은 켜지고, 말씀운동은 가정, 학교, 직장, 현장, 가문에서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열매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 (2)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사수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들어 가셨는데, 앞으로 계속 들어갈 것이다. (웃음) 길에서 또 만났다. "지옥 없어요?" "네." "그러면 지옥에나 가세요." (웃음) 죄송하지만,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옥 없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계속 갈 것이다. 계속 가서 말할 거다. (웃음) 바울이 그렇게 했지 않나? 나도 그렇게 따라하려고 한다. 갈1:8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신천지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호와의 증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율법주의의 최고 고수 천주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많은 우상, 무속, 점술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생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싶지만 그런 참값이다. (웃음)
- (3)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명단을 적고, 현장에서 잘못된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이 말씀운동을 지속하고, 이미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알았으니까, 건져내야 한다. 이단이 뭐가 무섭나. 이단 만나서 대화해 보라.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금을 받고 와서 배워서 다시 가서 참 복음을 전하게 될 것 아닌가? 건져내야 한다. 그리고 예방해야 한다. 이 말세지말에,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은 여러분 가문과 우리 교회가 될 줄 믿는다.